“첫시즌 선수가 팀PS 견인 유희관 박수 받아 마땅해”

▌두산 정명원코치가 본 유희관 VS 이재학


정명원 투수코치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두산 정명원 투수코치는 올 시즌 팀의 주축 선발로 활약하고 있는 유희관(27)에게 언제나 냉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유)희관이는 이제 시작한 투수다. 좋아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게 정 코치의 일관된 생각이다.

유희관은 스승의 냉정한 채찍질 속에 시즌 마지막 선발등판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10승 고지(9월 30일 잠실 LG전)에 올랐다. 두산 토종 좌완투수가 10승을 달성한 1988년 윤석환 이후 처음이다. 신인왕 라이벌인 NC 이재학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2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정 코치는 “둘(이재학 유희관) 다 신인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줬다”며 두 선수를 모두 칭찬했지만, 이번에는 팔이 안으로 굽었다. 정 코치는 “(유)희관이는 두산이 가을야구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시즌을 치르는 투수가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뿐 아니다. 정 코치는 “(유)희관이는 두산의 선수층이 두꺼워 내부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서도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선발 한 자리를 꿰찬 투수”라며 “군 제대 후 돌아와 이렇다할 기록도 없던 무명선수가 피나는 노력으로 선발로테이션에 들어왔고, 10승까지 거뒀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코치가 보는 제자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운영능력이다. 정 코치는 “제구력이 좋고 완급조절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며 “매우 영리한 친구여서 경기운영을 할 줄 안다. 그런 투수가 한국에서도 나왔다는 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정 코치는 이재학에 대해서도 “쓰리쿼터형인데 확실한 자기 주무기(체인지업)가 있다. 자신 있게 자기 볼을 던지면서 팀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해냈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권희동


노진혁

14홈런52타점 권희동 후보 가능 116경기 소화한 노진혁도 자격

▌그밖에 신인왕 후보들은?

NC 이재학과 두산 유희관이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에 도전장을 던지는 다른 후보들도 있다.

우선 신생팀인 NC 선수들은 대부분 신인왕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중 타자 중에선 나성범이 단연 돋보인다. 나성범은 2일까지 타율이 0.245로 다소 아쉽지만 14홈런, 64타점을 올리며 NC 돌풍의 주역이 됐다. 특히 타점에서 이호준(86개)에 이어 팀 내 2위로 찬스에 강한 면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권희동은 14홈런과 52타점을 올리며 가능성을 보였고, 노진혁은 주전 유격수로 116경기를 소화했다. 그러나 권희동과 노진혁은 나란히 2할대 초반의 타율을 기록 중이어서 아쉽다. NC 투수 중에선 이민호(1승3패1홀드10세이브)를 비롯해 이성민, 임창민, 손정욱, 노성호, 이태양 등도 가능성을 보였지만 신인왕 후보로 오르기에는 미흡했다.

LG 문선재도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신인왕에 도전할 기세였지만 성적(시즌 92경기·타율 0.267·4홈런·25타점)이 빼어나지는 않았다. SK 백인식은 후반기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선발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꿰찼지만 5승5패, 방어율 3.55로는 아무래도 이재학과 유희관에게 도전장을 던지기는 부족해 보인다. 이밖에 KIA 임준섭, 한화 송창현 등은 1군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한 데 만족해야 할 듯하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NC 이재학(왼쪽 사진)과 두산 유희관. 프로야구 현장의 코치, 선수들은 압도적으로 이재학의 신인왕 등극을 예상했다. 스포츠동아DB

이재학 ‘신인왕 대결’ 몰표로 이겼다

이슈 & 포커스 | ‘이재학 vs 유희관’ 각 구단 코치·투수·타자 대상 설문

21명 중 20명 “최고 신인은 이재학”
이강철코치 “타 팀에 있어도 에이스”
김진우 “야수 도움없이 10승 놀라워”

준PO 1차전때 기자단 투표로 선정
‘팀 4강견인’ 유희관과 실제대결 관심

올 시즌을 빛낸 최고의 신인은 누구일까.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는 넥센 박병호(27)의 2연패가 유력한 분위기다. 지난해 홈런·타점·장타율의 3관왕을 차지하며 첫 MVP에 등극했던 박병호는 2일 현재 홈런·타점·득점·장타율·출루율 등 공격 5개 부문 1위를 질주하며 MVP 2연패에 바짝 다가섰다. 그렇다면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며 신인왕은 NC 이재학(23)과 두산 유희관(27)의 양자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이에 스포츠동아는 2일 각 구단 코치 1명과 투수·타자 1명씩을 대상으로 신인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두 선수의 소속팀 NC와 두산을 제외한 7개 구단, 총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재학, 21표 중 20표 몰표

총 설문대상자 21명 중 20표, 약 95%의 응답자가 올 한 해를 가장 빛낸 신인으로 이재학을 꼽았다. 예상 밖으로 일방적으로 이재학에게 표가 몰렸다. 이재학은 2일까지 올해 27경기(선발 24경기)에 등판해 선발로만 10승을 거두며 5패1세이브, 방어율 2.88을 마크했다. 40경기(선발 18경기)에서 10승(2구원승 포함) 6패1세이브, 방어율 3.48을 기록한 유희관과 승수는 같지만 방어율 등 세부 기록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넥센 이강철 수석코치는 “팀 성적을 제외하고 개인 실력만 봤을 때 이재학은 정말 뛰어난 투수다. 다른 팀에 있어도 충분히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라고 평가했다. 같은 투수인 KIA 김진우는 “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수들의 도움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10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며 이재학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한화 이대수는 “재학이는 두산에 있을 때부터 공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NC에서 확실히 실력을 발휘했다. 우선 공 자체가 좋다”고 칭찬했다.

●‘신생팀 프리미엄’ VS ‘4강 견인차’

정규시즌 MVP와 신인왕은 올 한 해 프로야구 현장을 지킨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의 투표로 선정된다. 순수하게 정규시즌 성적만 놓고 평가하기 위해 포스트시즌 개막 전에 후보를 선정하고 준플레이오프 1차전 때 투표를 진행한다. 개표는 포스트시즌이 모두 끝난 뒤 정규시즌 시상식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이재학에게 몰표가 쏟아진 코치·선수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재학을 꼽은 응답자들이 지적했듯, 이재학은 ‘신생팀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 유희관과 마찬가지로 ‘중고 신인’이지만, 이재학은 올해 1군 무대를 처음 밟은 신생팀 NC 소속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롯데 송승준이 “팀 타선의 도움도 많지 않은데 10승을 거두고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더구나 신생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반면 유희관은 페넌트레이스 초반 하위권에 처졌던 두산을 4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에이스 니퍼트의 부상 등 외국인투수가 제 몫을 하지 못할 때 두산 마운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볼 수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 설문 참가자(21명) 명단

구단	코치(7명)	선수(14명)
삼성	김용국	오승환, 최형우
SK	최경환	백인식, 정상호
롯데	최기문	박준서, 송승준
KIA	김종국	김진우, 나지완
넥센	이강철	손승락, 송지만
LG	차명석	류제국, 신정락
한화	이종범	박정진, 이대수

이재학 “신인왕 넘어 ‘최다연속 10승이상’ 꿈”
나성범 “이재학 신인왕, 난 구단 첫 MVP 도전”

▌NC 슈퍼루키 듀오의 각오

쌍방울은 비운의 팀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1991년 1군 첫해 쌍방울 팬들은 2명의 신인선수를 보며 열광했다. 연고지는 유일하게 ‘직할시’가 아니었고, 모그룹의 명성도 타 팀에 비하면 약했다. 그러나 신인으로 27홈런을 날린 김기태(현 LG 감독)와 9승27세이브를 올린 조규제(현 KIA 코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이름이었다.

제9구단 NC팬들에게도 자랑하는 이름이 있다. 토종 에이스 이재학(23)과 3번타자 나성범(24)의 쑥쑥 성장하는 모습은 NC의 가장 큰 희망이다.

1일 마산 넥센전에서 이재학은 꿈에 그리던 10승을 달성했다. 방어율 2.88은 국내 투수 중 최고이며, 팀 동료 찰리(2.48)에 이어 전체 2위다. 평생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 경쟁에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재학은 이미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선수생활 전체를 건, ‘최다 연속시즌 10승 이상’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2일 마산구장에서 이재학은 “10승은 투수로 항상 그리던 꿈이었다. 만약 신인왕을 받으면 큰 영광이다. 그러나 한 해 반짝하는 투수가 아니라 10년 이상 10승을 거두는 꾸준한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다 연속시즌 두 자릿수 승리 기록은 이강철 넥센 수석코치가 보유한 10년이다. 꾸준함과 성실함 없이는 결코 다가설 수 없는 대기록이다. 이재학은 “내년 시즌이면 당장 타자들이 더 분석하고 타석에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년 발전하겠다. 올 겨울에는 서클체인지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날카롭게 가다듬겠다”고 다짐했다.


나성범

나성범은 이재학이 선발 등판한 1일 1-2로 뒤진 상황에서 넥센 문성현에게서 역전 결승 3점 홈런을 때렸다. 신인왕에 도전하는 동료에게 10승을 안겨주는 화끈한 선물이었다. 나성범은 “(이)재학이가 꼭 신인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매 타석 집중했다”며 웃었다. 시즌 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신인이지만 신인왕에는 한발 뒤쳐져 섭섭할 법도 하지만, 그 역시 더 큰 꿈을 갖고 있었다. 나성범은 “개막 직전 수술을 받은 것은 몸 관리를 못한 내 탓이다. 재학이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다. 섭섭함은 없다. 꼭 축하해주고 싶다. 재학이가 신인왕을 받으면 난 구단 최초의 시즌 MVP(최우수선수)에 도전하겠다”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창원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신인왕 총 30명…절반이 투수들

▌타임트랙

1983년부터 선정된 신인왕은 지난해까지 모두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 중 정확히 절반인 15명이 투수였다. 특히 2000년 SK 이승호(현 NC) 이후로는 13명 가운데 무려 8명이 투수로서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2002년 현대 조용준부터 2007년 두산 임태훈까지는 6년 연속 투수 신인왕이 탄생했고, 임태훈의 2007년 두산 입단 동기생인 이용찬은 2009년 26세 이브로 롯데 용병 애킨스와 함께 공동 구원왕에 오른 뒤 여세를 몰아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2009년 이용찬은 기자단 투표로 가려지는 신인왕 투표에서 역대 3번째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인왕으로 선정돼 가슴을 졸였다. 경쟁 상대는 KIA 내야수 안치홍이었다. 1차 투표에서 이용찬은 유효표 90표 중 42표를 얻어 2위 안치홍(26표)을 크게 앞질렀지만 과반에 미달해 2차 투표를 맞이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50표의 압도적 지지로 신인왕에 등극했다. 이용찬에 앞서 결선 투표를 통해 신인왕에 오른 주인공들은 2001년 한화 김태균과 2003년 현대 이동학이다. 김태균은 삼성 박한이, 이동학은 팀 동료 이택근(현 넥센)을 결선 투표에서 각각 따돌렸다.

올해는 두산 좌완투수 유희관과 NC 잠수함투수 이재학이 난형난제의 양상으로 신인왕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학의 팀 동료인 외야수 나성범도 신인타자로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역대 4번째로 결선 투표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 구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연도별 신인왕 수상자

연도	수상자	소속팀	포지션
1983	박종훈	OB	외야수
1984	윤석환	OB	투 수
1985	이순철	해태	내야수
1986	김건우	MBC	투 수
1987	이정훈	빙그레	외야수
1988	이용철	MBC	투 수
1989	박정현	태평양	투 수
1990	김동수	LG	포 수
1991	조규제	쌍방울	투 수
1992	염종석	롯데	투 수
1993	양준혁	삼성	외야수
1994	유지현	LG	내야수
1995	이동수	삼성	내야수
1996	박재홍	현대	외야수
1997	이병규	LG	외야수
1998	김수경	현대	투 수
1999	홍성흔	두산	포 수
2000	이승호	SK	투 수
2001	김태균	한화	내야수
2002	조용준	현대	투 수
2003	이동학	현대	투 수
2004	오재영	현대	투 수
2005	오승환	삼성	투 수
2006	류현진	한화	투 수
2007	임태훈	두산	투 수
2008	최형우	삼성	외야수
2009	이용찬	두산	투 수
2010	양의지	두산	포 수
2011	배영섭	삼성	외야수
2012	서건창	넥센	내야수